

## 헌금에 대하여...

평강의 주님께서 날마다 성도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예배 의식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지는 제물인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절대로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선물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압니다. 공기, 햇빛, 물, 음식, 아름다운 노을, 꽃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노력, 희생 등으로 감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그러나 결코 우리의 소유는 아닌) 물질 중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에 쓰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옛날에는 짐승이나 곡식 등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형태로 드려지게 되어 헌금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 헌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2.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신명기 16장 15-17절]

3.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등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역대상 29장 16절]

4. 헌금은 자기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하늘 나라의 창고에 쌓여져서 축복으로 되 돌아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6장 20절]

5. 헌금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헌금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빌립보서 4장 18절]

6.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전도하고 외국에 선교하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하나님 사업에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후서 8장 4절]

☞ 헌금은 어떤 곳에 쓰여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은 개인적으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려져 각양 축복으로 되 돌아오게 되며, 한편 그 용도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에 쓰여집니다.

- ①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문서, 테이프 등 제작과 후원에 쓰입니다.
- ② 주일 학교, 학생회 등 각 부서의 교육비 및 활동비로 쓰여집니다.
- ③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와 사무 간사 등의 사례비(생활비, 활동비 등)로 지출됩니다.
- ④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비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부조금으로 쓰여집니다.
- ⑤ 교회의 각종 관리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도 쓰여집니다.

☞ 헌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입니다.

매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대개 일정한 헌금 액수를 스스로 정해 놓고 매주마다 빠짐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 헌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 대신 드린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 십일조 헌금입니다.

십일조란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서, 누구의 수입이든지 십분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 성도의 의무로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말라기 3장 10절]

3. 감사 헌금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영적으로 크게 은혜를 받았든가 학습, 세례, 직분 받았을 때에 드리기 기도 하고 생일, 입학, 취직, 이사, 회갑, 결혼 등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 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각종 절기 때에도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선교 및 기타 특별 헌금

선교 헌금이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자 할 때 드리는 헌금이며, 기타 지역과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각종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받으시고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을 더 사랑 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을 몇 갑절로 다시 갚아 주시며,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시며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 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 ②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 ③ 준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마련했다가 미리

봉투에 정성껏 넣어서 현금 시간에 드려야 합니다.

④ 하나님이 주신 형편을 따라 적당한 금액을 내되, 남이 내니까 나도 내는 식으로 하지 말도록 합니다.

⑤ 하나님이 주신 형편을 따라 적당한 금액을 내되 그 힘닿는 대로 현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은 보시지 않습니다.

⑥ 모든 현금은 반드시 그 마음에 허락될 때에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억지로 하는 현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세로 현금을 드려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크게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 복(福) -

우리는 흔히 '복' 이라고 하면 재물, 건강, 자녀, 사업, 장수, 명예, 권세 등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세상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구원받는데 장애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b>예 배 안 내</b>	<b>주 일 예 배</b>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b>기 타 예 배</b>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b>정 기 모 임</b>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나의 길은 바른가?

어떤

기차의 차장이 승객의 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차를 잘못 타셨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표 검사를 해 나갈수록 잘못 탄 손님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차 안이 온통 수리장이 되었을 때 손님 한 사람이

"차장님, 실례지만

혹시 차장님께서 기차를 잘못 타신 것 아닙니까?"

하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차장 자신이 기차를 바꿔 탄 것입니다.

나도 이 차장처럼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지금 나의 목표와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선택했는지... 지금 바른길로 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길인지...